

코로나 이후, 한국 그리스도인의

종교성 변화와 교회의 과제 :

2021 한국갤럽 종교 조사를 중심으로

정 경 일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

여는 말 : 변화 속의 종교

살아 있는 것은 변화한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 생명체는 죽고 만다. 종교도 시간 속에서 발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생명체다. 변화는 성숙의 과정이기도 하고 쇠락의 과정이기도 하다.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기도 한다. 변화가 야기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변화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한 변화는 피할 수 없기에 개인도 사회도 종교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시대에 따른 한국종교의 변화를 보여주는 조사는 생각보다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정부 차원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종교 관련 항목이 처음 포함된 때는 1985년이였다. 민간 차원의 조사도 있어 왔는데, 그중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는 정부보다 한 해 빠른 1984년부터 한국인의 종교 실태 및 종교관, 가치관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에 이어 2021년까지 총 6회 실시한 조사는 약 37년 동안의 한국종교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 개신교의 변화는 매우 역동적이다. 1980년대까지 급성장하던 개신교는 1990년대 이후 정체 또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가 신자 수 967만6천 명으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최대 종교’가 되었다. 유난히 뜨거운 개신교의 선교열을 생각하면 범교회 차원의 축제나 기념 예배가 있었을 법도 한데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아마도 당시 개신교 각 교단의 자체 조사 결과는 교세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상의 차이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은 유지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탈하는 소위 ‘가나안(안나가) 신자’ 현상이 개신교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개신교 종교 생활과 문화의 세대 간 편차도 커졌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악화되었다. 오늘의 한국 개신교는 변화의 폭풍 속에 있다.

지금의 변화는 한국 개신교를 파국으로 밀어 넣는 위기일 수도 있고 쇠신으로 이끄는 기회일 수도 있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외적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신교 주체의 의식 전환과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2021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현황>과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중에서 개신교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개신교를 새롭게 할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탈종교화의 가속화, 둘째, 청년 세대의 무종교성, 셋째, 종교의 사회적 공공성 요구다.

1. 탈종교화의 가속화

한국사회에서 비종교인 수가 종교인 수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 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상으로는 2015년부터다. 2005년에는 종교인이 52.9%였고 비종교인이 47.1%였는데, 10년 뒤인 2015년에는 각각 43.9%와 56.1%로 크게 역전된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014년에는 종교인 대 비종교인 비율이 50% 대 50%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번 2021년 조사에서는 40% 대 60%로 비종교인 증가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외에도 여타의 최근 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탈종교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탈종교화’의 의미를 한국사회와 종교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대 한국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을 상대적으로 짧은 시대 동안 ‘압축적’으로 경

힘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종교도 탈종교화를 단기간에 매우 복합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의 탈종교화는 서양의 탈종교화 현상과 차이와 공통점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의 탈종교화는 기본적으로 ‘세속화’(secularization) 형태를 보인다. 이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Christendom)’가 실재했던 서양에서 중세까지 지배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계몽주의와 과학에 자리를 내어주며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종교적(기독교적)이었던 서양 사회가 세속화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지배종교가 없었던 현대 한국사회에서 세속화 의미로서의 탈종교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조선조 오백 년 동안 주변화되었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재활성화된 불교, 같은 시기에 새롭게 발흥한 동학, 원불교, 대종교 등 민족종교,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지 불과 일일백 년 만에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한 그리스도교가 현대 한국사회를 ‘종교화’한 것일 수도 있다. 피터 버거 등 세속화 이론가들도 이미 1990년대에 비서구 세계에서 종교가 부흥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세속화 테제를 ‘탈세속화(deseccularization)’ 테제로 수정한 바 있는데, 현대 한국사회의 종교 변동은 탈세속화 현상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회가 종교화 또는 재종교화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종교도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갤럽의 이번 종교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도종교의 집단주의적 통제로부터 개인 신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다. 오늘의 신자들은 종교의 내적 가르침이나 영성에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종교의 외적 교리나 의례나 제도에 관해서는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더 정확한 개념은 탈종교화 보다는 ‘탈제도종교화’일 것이다.

탈제도종교화는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소속하지 않고 신앙하는”(believing without belonging)”, “여러 종교에 속하는”(multiple religious belonging)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근원적 부정이 아니라 단지 외적 소속이나 제도에 관심이 없는 “무종교인”(the nones)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종교와 비종교의 경계를 벗어나 “세속적 영성”(secular spirituality)을 추구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제도종교화는 종교들 사이의 전통적 경계도 약화시켜서, 오늘의 종교인은 다른 종교 전통의 지

성과 영성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신교인도 많다.

탈종교화 또는 탈제도종교화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한국종교는 개신교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종교인의 과거 신앙 경험’ 항목에서 개신교 비율이 52%로 불교 38%와 천주교 11%보다 현저히 높다. 이러한 ‘탈개신교’ 현상은 청년세대에서 더 두드러진다. 20대의 경우 개신교가 12%로 불교 1%와 천주교 1%보다 훨씬 높고, 30대의 경우도 개신교가 18%로 불교 3%, 천주교 4%보다 높다.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한국 개신교인의 탈제도종교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나안 신자’ 현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탈종교화 현상과 관련해 그리스도인이 성찰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탈물질주의의 예외’ 현상이다. 1981년 시작한 국제적 장기 학술 프로젝트인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나면 그 사회 구성원은 민주주의, 인권, 환경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비약적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주의적 경향을 예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WVS 연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물질주의가 위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과 냉전, IMF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의 내면화 등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상이 전쟁 같은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인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계속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탈물질주의와 종교를 등치 관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적 가치와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최소한 같은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탈종교화 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종교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도 물질주의적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웃종교의 문제는 차치하고, 개신교 안에 오랫동안 지배적 신앙 행태로 굳어져 온 개인적 기복주의와 집단적 성장주의는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다. 물질과 권력을 욕망하는 데서는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신이 ‘하느님’인지 ‘맘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질적, 세속적 가치가 종교적 가치와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탈물질주의의 예외를 보이는 한국사회는 매우 비종교적이며, 역설적으로 한국종교도 비종교적 아니 ‘반종교적’인지도 모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시화되고 있던 탈종교화, 탈제도종교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평신도의 이탈을 어느 정도 통제하며 관리하고 있던 제도종교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재난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교권 세력의 지배로부터 갑자기 자유로워진 평신도는 더욱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지적, 영적, 윤리적 모험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탈제도종교화는 종교의 외적 성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위기이지만 주체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코로나 이후 종교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탈제도종교화가 물질주의적 세속화나 개인주의적 사사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성과 영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청년세대의 무종교성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 중 종교인은 22%이고 30대는 30%다. 2030세대 또는 밀레니얼+Z세대(MZ세대)의 종교인 비율 감소세는 무척 가팔라서, 2014년 조사 이후 불과 7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다. 종교별로 보면 20대 종교인 중 개신교인이 14%이고 30대 중에는 19%로, 불교(20대 4%, 30대 6%)와 천주교(20대 3%, 30대 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청년세대 전체의 종교인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개신교도 청년세대의 탈종교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세대가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20대 64%, 30대 5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20대 18%, 30대 20%다. 전자가 종교의 지적, 영적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후자는 종교의 윤리적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마디로 청년세대의 무종교성이 보여주는 것은 종교의 총체적 위기다. 종교에 대한 청년세대의 무관심과 불신은 종교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 종교에 무관심한 2030세대가 10년 뒤, 20년 뒤에 종교에 무관심한 3040, 4050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인의 수적 감소나 종교활동의 약화 같은 외적, 구조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의 종교가 고통받는 인간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본래 종교의 출발점은 고통의 현실이고 목적지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집단 중 하나인 청년세대가 종교에 가장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종교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근본적 위기일 것이다. ‘노력’ 정도가 아니라 ‘노오력’을 해도 삶의 조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Hell-조선’, ‘n포 세대’, ‘흙수저’와 같은 고통과 절

망의 키워드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는 오늘의 2030세대가 정작 고통으로부터 구원의 길이라는 종교에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현 청년세대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 생활이 ‘일시정지’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30세대는 앞서 언급한 ‘탈물질주의의 예외’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에 태어나 청소년기에 신자유주의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무한경쟁을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어려서부터 삶의 원리로 내면화해야 했던 청소년들이 종교적 감수성을 기를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종교인 중 예배 참석 등 정기적 종교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주일성수’가 교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화되어 있는 개신교 신앙풍토에서조차도 청소년 시기의 종교생활을 일시정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불가피한 일로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중학교 2, 3학년만 되어도 공부가 신앙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해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학원이나 도서관에 내려 주고 자기들만 교회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주일 아침 풍경이 되었다.

청년세대의 무종교성을 심화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세대에게와 마찬가지로 2030세대에게도 종교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는 데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종교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2030세대 당사자 이면서 연구자인 임명묵은 ‘90년대생’이 이전 세대와 달리 공적, 사적으로 ‘탈가치’의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치를 추구할 “심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¹ 생존과 경쟁이 삶의 디폴트가 되어버린 시대를 사느라 소진되어 버려 공적, 사적 가치를 추구할 내적 여유와 여력이 없는 청년세대가 종교적 가치는 추구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 좌절, 질시, 체념, 분노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오늘의 청년은 종교적 초월에 기대어 평안을 얻는 대신 온라인 세계에서 “투쟁적”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종교적 성인들도 한때는 2030세대였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고타마 싯다르타는 29세에 출가한 후 목숨 건 수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이룬 붓다가 되었고,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도 나이 30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무함마드도 청년 시절의 치열한 영적 분투를 거쳐 나이 40에 히라산에서 신비 체험을 하고 이슬람의 문을 열었다. 이처럼 세계의 종교가 청년세대 성인(聖人)들의 깨달음과 가르침 덕분에 생겨나고 생명을 이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 시대 2030세대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종교를 고갈

1 임명묵, 『K를 생각한다 :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이드웨이, 2021), 2장, 전자책

시키는 근본 위기인지도 모른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 지도자’, ‘청년 성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의 토양을 새로 갈아엎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내부의 인식 전환과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2030세대를 ‘미전도종족’으로 대상화하거나 ‘차세대’, ‘미래세대’로 규정하며 리더십의 부여를 유예하지 말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내일이 아닌 오늘의 교회 안에서 ‘청년 리더십’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교회 리더십의 성서적 모델은 ‘은사’다. 초대교회에서 다양한 은사의 리더십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 리더십도 다른 노년 리더십, 중장년 리더십, 여성 리더십, 소수자 리더십 등과 함께 평등하게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단 총회의 총대 절대다수가 ‘60대 이상 남성’들이 현실이 계속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2021년 독일복음교회(EKD)는 25살 청년여성 아나-니콜 하인리히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상징적 배려가 아니다. 김교신과 함석헌이 『성서조선』을 창간하여 식민지 조선교회에 변화와 부활의 바람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27세였고, 마틴 루터 킹이 역사적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이끌었을 때 나이가 26세였다. 그들의 예언자적 창의성도 놀랍지만 젊은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른 그 시대의 교회가 더 놀랍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청년문제의 해결 주체는 청년이며,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전적인 신뢰와 응원이다.

3. 사회의 요구 : 종교의 공공성

종교 관련 뉴스가 ‘문화면’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종교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종교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민사회는 더이상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한국갤럽 종교 조사 결과 중 개신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이다.

종교의 사회적 신뢰도 저하는 최근의 여러 다른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20년 6월 시사IN과 KBS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지수는 -46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56에 이어 바닥에서 두 번째였다. 이 조사에는 종교별 통계가 따로 없었지만, 코로나 시기 내내 지속된 개신교를 향한 사회적 불신과 반감을 감안하면 개신교 때문에 종교의 전체 평균이 낮아졌을 것이 분명하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증감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의견이

바뀌었다.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1980년대에는 70%였는데, 2014년에는 47%, 그리고 이번에는 18%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비종교인의 압도적 다수인 82%가 종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2021년 1월 29일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28%,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48%로, 전체적 불신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개신교인의 개신교 신뢰도는 9%에 불과하다.²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 정도가 몰락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개신교인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개신교인의 비율이 2014년 59%에서 2021년 26%로 크게 떨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개신교인의 응답은 2014년 19%에서 2021년 28%로 올라갔다. 이는 개신교인 스스로도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는 뭘 하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더 심각한 문제는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 인이야 당연히 자신의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비종교인의 종교 인식이 중요한데, 비종교인의 종교 호감도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순이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비호감 종교가 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 자체에 호감을 갖지 않는 응답자가 61%라는 사실이다. 종교에 대한 비호감 정도도 2004년 33%, 2014년 46%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에 대한 비호감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마찬가지로 청년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20대 56%, 30대 40%) 점이다.

사실 최근 한국의 비종교인이 한국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해 드러내는 감정은 단순히 비호감이라기보다는 ‘반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교회세습, 성범죄, 재정비리, 극우세력화 등 개신교 집단이 일으킨 교회 안팎의 문제들 때문에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보인 반사회적 행태

2 목회데이터연구소, 『Numbers』, 82호(2021.1.29.). 3.

는 교회에 대한 비호감을 반감으로 실망을 절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신뢰의 추락은 기대의 추락이기도 하다. 오늘의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대윤리가 아니라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최소윤리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사회의 반감과 절망을 실감하면서 개신교 내부에서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적 교회들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에 대한 기여를 통해 사회적 공공성을 이미 실현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보수교회들도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보수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이 지난해 말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 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서 “자기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 섬기는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항목에 목회자의 95.3%, 평신도의 80.2%가 긍정을 나타냈다. 이처럼 보수 개신교도 사회적 공공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교회가 고통스럽게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 ‘좋은 신자’는 ‘좋은 시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지성’이다. 그것은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성서의 메시지와 신학적 사유를 통해 성찰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57%에 이른다. 2014년에 80%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지만, 코로나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재난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요일마다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 참석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아무튼, 가나안 신자 현상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교인 수가 줄었다 해도, 여전히 주일마다 수많은 온·오프라인 교회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한 예배에서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복음에 비추어 성찰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이어진다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사회도 변화될 것이다.

맺는말 : 재난 속에서 ‘새롭게 고치는(改新)’ 교회

탈종교화는 종교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적 조건이다. 탁한 물밑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 위로 깨끗한 줄기와 유연한 잎을 올려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蓮)처

럼, 부정적 조건 덕분에 개신교도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제약과 한계가 교회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개신교는 억압적인 것에 저항(Protestant)하며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개혁(Reformation)하면서 시작했다. 따라서 개신교가 권위주의적 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저항-개혁 기원을 망각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에토스는 시대마다 자신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진전되고 팬데믹 상황에도 적응하게 되면서 개신교 목사들과 평신도들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걱정하며 묻는다. 재난이 끝나면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까? 교회 재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 교회 구조와 예배 문화는 어떻게 달라질까? 교회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며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현재적 경험으로부터 더 철저히 배워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가르쳐준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진리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방역과 치료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과 방역 종사자들, 시민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애쓰는 생산과 유통 노동자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욕망을 절제하는 시민들, 그들의 상호돌봄과 사랑 덕분에 재난 속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교회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재난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돌보고,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며 사랑하고, 곤경에 처한 자매교회들을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재난 이후’의 교회는 사회적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재난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